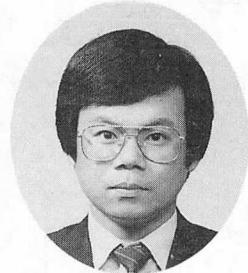


VIV-ASIA를 참관하고



이원형 차장
(한국사이나미드(주))

아시아 동남쪽에 위치한 태국은 불교의 나라로 인구 5,500만에 면적은 프랑스와 비슷한 51만km²이며 돼지사육두수는 4백80만두 가량으로 동남아 지역의 사육두수인 4억4천만두의 10분의 1이 조금 넘는다. 참고로 아시아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국가별 양돈규모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아시아지역 국가별 돼지 사육두수

국	가	사육두수 (천두)	국	가	사육두수 (천두)
중	국	372,000	베	트 남	12,200
일	본	10,965	라	오 스	1,415
북	한	3,300	태	국	4,790
			필	리 핀	7,525
한	국	5,485	캄	보 디 아	1,610
미	얀 마(버마)	2,400	말	레이 지 아	2,550
대	만	8,565	인	도 네 시 아	6,800

VIV는 지금까지 네덜란드에서 개최되어 왔으나 동남아에서는 처음으로 태국에서 '93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방콕의 QSNCC (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었다. 이 QSNCC는 1991년에 완공되었는데 방콕 심장부에 위치하고 주위에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 기간 동안 옆의 또다른 전시장에 의학기구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었다. 박람회 조직

위원장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전략적 위치이고 관광의 요충지이므로 이번 행사의 개최지로 방콕이 선정되었다"고 한다. 일간신문에도 VIV 개최를 알리는 내용이 비교적 크게 실렸으며 개최 첫날에는 왕족이 지나가자 주위사람에게 일어서서 예의를 표하라고 경비원들이 안내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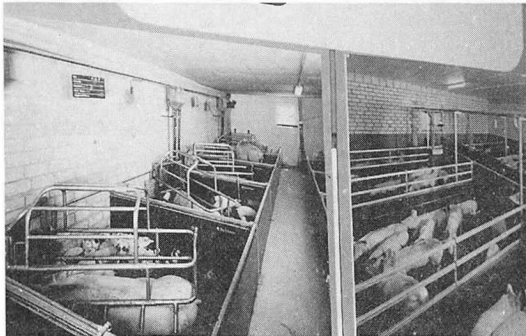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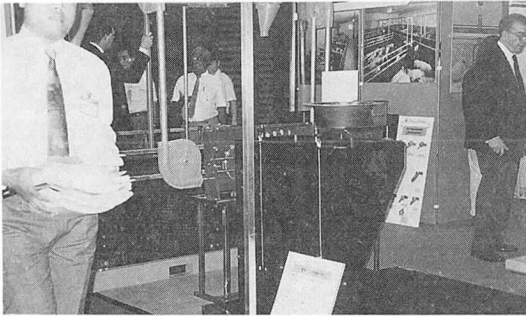
VIV아시아 '93에 참가한 업체는 70여개로 한국에서도 인공수정업체인 돼지인공수정센터와 축산기구회사인 중앙축산시스템에서 출품하여 무척 반가운 생각이 들었다.

<참가 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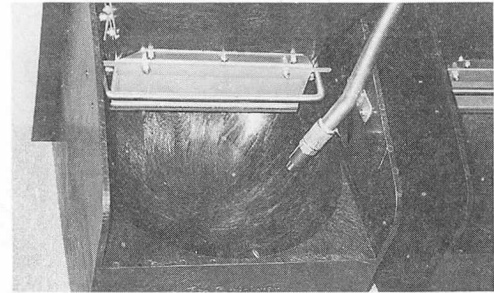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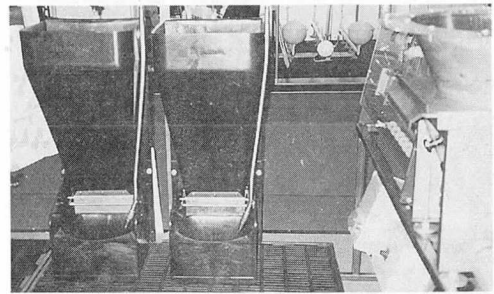
전시장에 들어서니 각 회사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열심히 자사상품 설명에 열을 올리고 있었으며, 전시상품은 크게 자동급이시설, 급이기, 급수기를 필두로 한 축산기구류, 분만스톨 및 바닥재, 환경콘트롤 기구, 동물약품, 종돈 및 인공수정 관련기구 등이 출품되었다. 대략 아시아가 20% 정도였으며 그 외는 구미쪽에서 출품되어 동남아 시장진출에 더욱 신경쓰는 것 같았다.

1. 자동급이 시설

오가 형태보다는 디스크 형태가 많았고, 시간당 사료 이송량을 늘리기 위해 이송 파이프가 굵어진 것 같았다.



〈그림 1〉 자동급이시설 및 습식 급이기
이송 디스크가 커지고 사료이동 속도도 빨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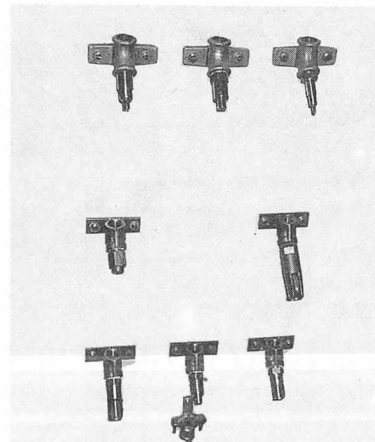
〈그림 2〉 습식급이기

사료조절판이 가장 중요하며 벽이 얇은 경우 고정이 쉬우나 우리나라처럼 콘크리트벽이 두꺼운 곳에 고정하려면 현상황에 적합한 고정방법이 필요하다.

2. 급이·급수 시스템

양돈 생산비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료의 이용가치를 높여주기 위해 습식급이기가 다양하게 출품되었고, 이미 국내에 들어온 것도 있었다. 대부분 네덜란드에서 제작되었으며 일령에 따라 사료량을 조절하기 위해 조절장치가 급이기에 부착된 것도 있었다.

급수기는 폐수처리 문제에 따라 물의 허실 방지를 위한 저압니플이 다양한 형태로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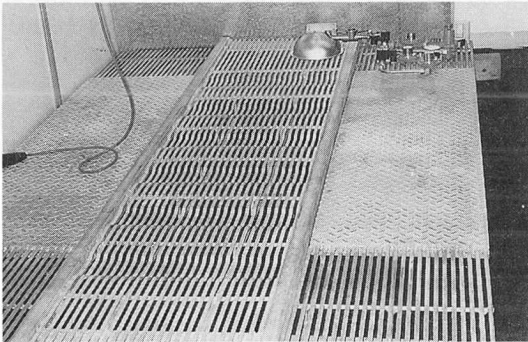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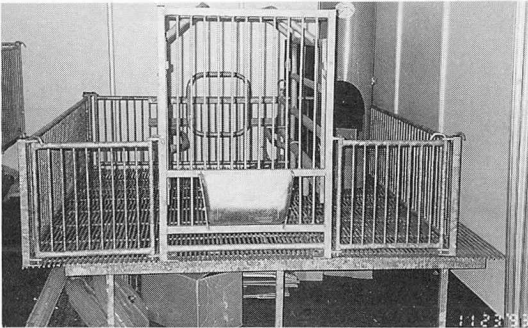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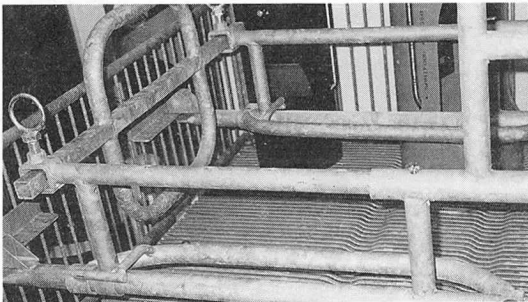
일령과 목적에 따라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니플

3. 스톨 및 바닥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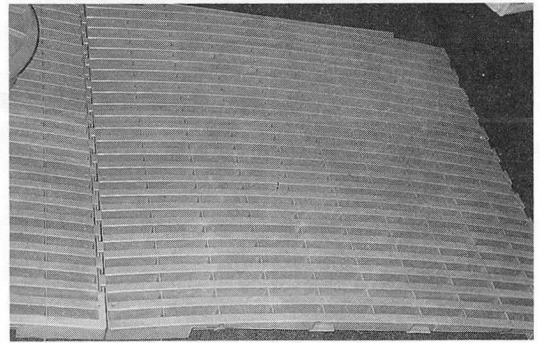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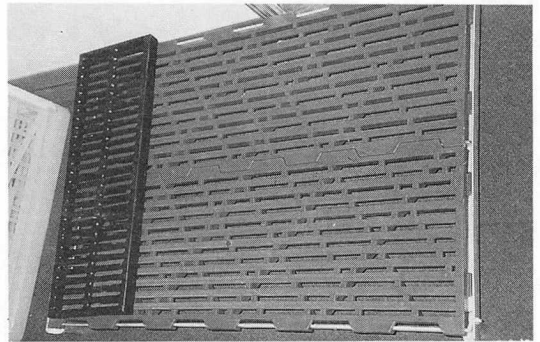
최근 국내에 여러가지가 소개되어 특이한 것은 없었으나 바닥재는 트라이바가 주종을 이루고 여러가지 플라스틱 바닥재도 눈에 띄었다.



〈그림 4〉 완성된 분만틀
미끄럼 방지를 위한 홈이 있는 트라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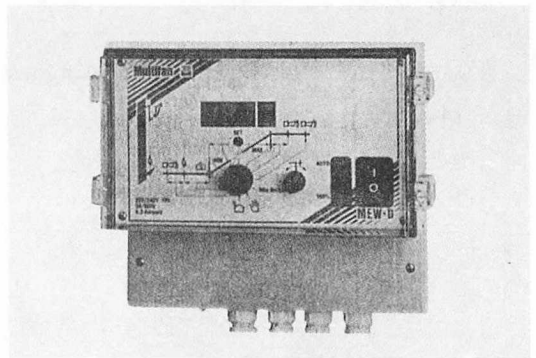
〈그림 5〉 분만틀의 압사 방지대
이미 국내에 소개되어 설치된 농장도 있으며 비교적 간단한 설치로 효과 기대된다. 후절기는 외음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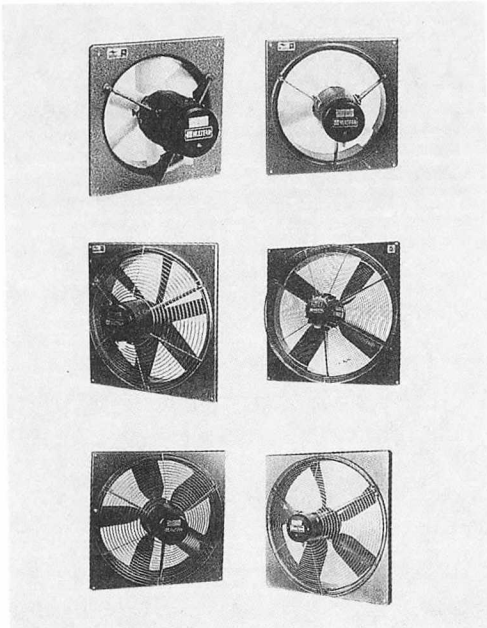
〈그림 6〉 플라스틱 바닥재
바닥재 연결부위가 견고할 것 같다.

4. 환경조절 기구

유럽에는 쾌적한 사육환경 관리와 인력을 줄이기 위해 무창돈사 형태가 많으며 이를 위한 콘트롤러와 팬의 성능이 우수하다.



〈그림 7〉 멀티팬 작동을 위한 콘트롤러



<그림 8> 각종 배기 팬

돈사의 크기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팬이 회전수에 따라 선택된다.

5. 방역 위생 상품

세계 유명 메이커에서 백신을 중심으로 최근 개발된 항생물질, 기타 약품이 출품되었고, 백신용 주사기, 음수투약기구 등이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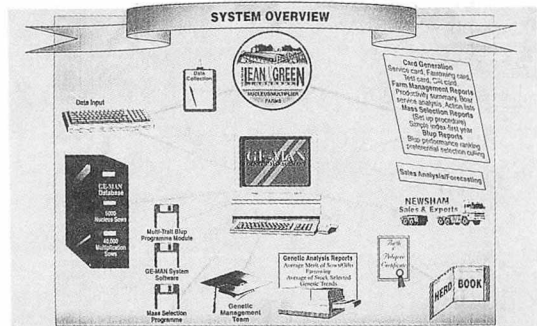
6. 종돈 및 인공수정

시장 개방시 상당한 영향을 끼칠 종돈은 개량 방향과 전산 등을 이용한 관리시스템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혈통 갱신용 이외에는 자체 혈통을 통한 육종개량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앞선 경우처럼 1회 인공수정으로 10.5두를 육박하는 성적의 노하우와 희석액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최근 선진 양돈기술 도입을 위해 국내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선진양돈의 기술



<그림 9>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PIC 종돈회사 전시관



<그림 10> 세계 육종회사의 하나인 뉴삼(NEW SHAM)사의 종돈 관리 모식도

전산, 혈통관리팀 농장 판매가 유기적으로 잘 관리되어 있다.

연수, 앞선 시설의 도입, 혈통개량을 위한 종돈도입, 사료개발기술 등으로 양돈산업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외부와의 경쟁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 도입과 아울러 생산성 향상 증대라는 기술적인 뒷받침 없이는 힘들다는 것이다. 최소 모돈 두당 출하두수가 국내 평균 20두 이상이 1차적으로 달성되어야 겠고 양돈산업의 현안문제인 인력감소를 위한 시설, 기구의 현대화, 종돈의 효과적 개량, 분뇨처리의 효과적 관리, 위생개선을 해 나가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배합사료, 축산 기자재 및 동물약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축산지원금에 대한 금리인하 및 융자기간의 연장 등 정부에 요구할 사항과 병행해나가야 만이 국내 양돈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